



# 중국 제지산업 동향

## Development of Chinese Package Paper Industry

飯田 信一 / ITOCHU Hong Kong Ltd. 생활재료부장

### 1. 서론

제2차 중국 붐으로 말할 정도로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및 거래가 가속되고 있다. 실제의 기업진출, 거래현장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지에서의 포장재료의 조달방법, 다시 말해서 그 포장 재료의 품질이다. 특히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남지구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강하며 제품의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수출제품의 외장, 내장의 모양을 보호하는 포장재료의 품질안정화는 제품자체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있다. 더욱이 포장재료를 구성하는 종이소재는 많이 있으나 원지 즉, 골판지 원지(라이너, 중심), 백판지는 포장재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본 고에서는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골판지 원지 메이커의 동향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최근 몇 년 100만톤 규모의 증설이 계속되고 있는지라는 기본적인 흥미, 중국 제지업계의 구조, 발전과정, 과제를 근거로 하여 그 외의 포장자재의 현지조달의 주요부분을 찾아보려 한다.

### 1. 포장지 생산, 소비 개관

[표 1]에 정리한대로, 골판지 원지(라이너, 중심), 백판지의 중국군내에 있어서의 2002년, 2003년의 생산, 수출입, 소비상황을 비교했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 연포장의 수요의 증가는 10%에 가까우며, 인쇄용지의 성장 5% 전후를 크게 웃돈다.
- 포장지의 수입지 비율은 15% 전후로 높으며 완전한 수입대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골판지 원지와 비교해서 백판지의 성장이란 단계 높아, 지기계(紙器系) 수요의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 라이너의 수입은 감소 경향이 있으나, 중심을 감소하지 않았다. 중심에 대해서는 수입품질은 뿌리 깊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제지협회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매년 8~9%의 수요의 증가가 있으며 2010년 시점에서는 포장지 전체로 3,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예측에 의하면 2015년의 시점에 이르면 4,200만톤에 달할 것으로

[표 1] 중국의 포장지 생산, 수요동향 2002, 2003년의 비교

구분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생산	전년대비	수입	전년대비	수출	전년대비	소비량	전년대비				
백판지	460	550	19.57%	81 15.1%	104 16.1%	28.40%	5.5	9	63.64%	535.5	645	20.45%
라이너	600	680	13.33%	125 17.3%	117 14.7%	-6.40%	0.7	1	42.86%	724.3	796	9.90%
중심	600	670	11.67%	133 18.2%	134 16.7%	0.75%	3.2	3	-6.25%	729.8	801	9.76%
합계										1,990	2,242	

단위 : 10,000톤 중국 제지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예상된다.

## 2. 광둥성 골판지 원지 생산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포장지 생산의 중심은 광둥성(廣東省)이다([표 2], [표 3] 참조).

[표 2] 광둥성의 개관(概觀)(2002년 자료기준)

- 성도 : 광주시(廣州市)
- 언어 : 광둥어(홍콩과 공유), 북경어
- 인구 : 7,800만 명
- GDP : 1,270억 달러
- GDP성장률 : 10.8% (2003년 4~9월 : 13%)
- 수출액 : 1,190억 달러 (국내1위, 쉐어(share) 36%)
- 수입액 : 1,060억 달러 (국내1위, 쉐어(share) 38%)
-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액 : 113억 달러
- 주강(珠江) 델타지대를 보유, 홍콩제조업의 이전장소로서 발전 확대, 역사적으로 수출지향이 강하다.
2003년의 속보치(速報値)로는 수출입액이 2002년에 비해 27~29%증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액도 18%증가되어 견조(堅調)한 움직임

포장지생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홍콩의 제조업이 역사적으로 수출지향 아래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현지에서의 용지공급, 가공, 인쇄의 기술이 축적되어 왔다.

광둥성의 제지업계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포장지(특히 골판지원지를 주축) 주체의 생산구조

- 수입지 비율이 높다 → 전통적으로 홍콩이 창구 역할

[표 3] 광둥성 제지산업 동향(2003년 자료기준)

- 전 성(省) 생산량 : 620만 (전 중국의16%, 전년대비 29% 증가) (2001년 : 400만톤, 2002년 : 480만톤)
- 포장지생산의 점유율 : 생산량의 75%
- 수입량 : 450만톤(전국의 72%)
- 제지메이커 수 : 약 350사 (內 3만톤 이상) : 33사 (內 10만톤 이상) : 11사(성 생산량의 54%를 점함)
역사적으로 홍콩제조업의 생산기지로서 위치하여 완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이 강한 산업지향 포장을 지향해 왔다는 배경이 있다.

\* 광둥성 제지협회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 연간 10만톤 능력의 상위 10사 정도로 생산력의 반을 점유하지만 중소기업의 존재감도 있다.

- 품질은 높은 레벨 → 수입지와의 경쟁에 놓여 왔으므로, 세계수준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다.

2004년에 있어 대표적인 성내(省內) 제지회사의 포장지증산(增産)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백판지 : 나인드레곤社의 연간 40만톤, 건휘지업(建輝紙業)의 생산 30만톤

- 중심(中芯) : 리먼社의 연간 35만톤(단, 공장은 주강(珠江)상숙(常熟)에 위치)

특히, 백판 2社의 증산은 동완지구(東莞地區)에 집중하고 있으며 2005년 여름까지 가동을 목표로 건휘지업(建輝紙業)은 30만톤 증산이 실행 중이며 홍콩시장의 백판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3. 골판지원지 증산을 견인하는 2사

광동성의 증산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나인드레곤社(미중 합

병)와 홍콩기업의 리먼社의 2社이다. 양사는 경쟁하듯이 동완지구(東莞地區)에서 증축을 계속하여 결국에는 화동지구(華東地區)로의 진출을 이뤄내고 있다((표 4) 참조).

나인드레곤社(東莞玖龍紙業)는 미국 측 출자자의 메이저급 고지(古紙)회수업체와 중국의 합병회사이며 미국 측의 캘리포니아주 중심으로 대량으로 수집하는 고지자료를 배경으로 경쟁력을 붙여, 최근에는 일본에도 고지매수 거점을 두고 있다. 최근 3년간에 생산능력을 300만톤 수준에 끌어올린 저력이 있다. 언젠가는 골판지 케이스제조, 가공까지의 일관체제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원지의 대량매수에 의한 코스트 감축, 그리고 단기간에 급속한 셰어의 확대 등, 경영 자세는 적극적이다.

홍콩의 상장기업인 리먼社는 올해 35세의 레이몬드 리씨(캐나다 유학파)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리먼그룹은 원래 홍콩의 리(李) 가문이 경영한 가죽제품제조회사가 기반이다. 작년 말에 리먼社는 북미의 대표적인 UKP(미표백 펄프) 메이커인 사몬社를 산하로 들여, 골판지원지의 원료 코스트의 삭감을 계획하는 적극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동회사 강소성(江蘇省) 상숙(常熟)공장의 2호 초지기에서 강화중심을 주체로 생산하는 등 중국의 판지업계에 있어서 취약했던 강화중심에도 조준을 하고 있다.

광동성 소재의 골판지회사의 창고에 가보면 대략 상기의 2社의 제품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쪽에서 양사제품에 대한 평가는 극히 높다.

양사의 본사공장이 있는 동완(東莞)은 마치 중국의 골판지원지의 중심의 양상이며, 덧붙여

[표 4] 광동성의 증산을 견인하는 2社

● 나인드레곤社	● 리먼社
- 자본 : 미국, 중국합병	- 자본 : 홍콩상장기업
- 생산능력 : 연간 245만톤	- 생산능력 : 연간 120만톤
* 앞으로 3년간에 340만톤	* 2005년 말까지 160만톤
- 생산품목 : 라이너, 백판지, 중심	- 생산품목 : 라이너, 중심(합강화심)
- 공장위치 : 광동성(廣東省) 동완(東莞), 강소성(江蘇省)태창(太倉)	- 공장위치 : 광동성(廣東省) 동완(東莞), 강소성(江蘇省) 상숙(常熟)

\* 광동에서 강소성(江蘇省)으로 적극 확대

상기에서 말한 건휘지업(建輝紙業)과 금주지업(金州紙業)이 각각 백판지, 중심설비를 증설하고 있어 더더욱 포장지의 중점기지로써 눈을 땔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 4. 공급과다 증설 문제점

최근 수년간 계속된 골판지원지 증설이 공급과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소박한 의문이 솟는다.

그러나 최초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15%의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율10%에 가까운 수요의 증가로 보더라도 숫자상에서는 그 정도의 증설은 왕성한 수요에 흡수된다고 생각해도 좋다([표 5] 참조).

덧붙여 공급 측의 제지회사에서도 메이저급의 국영회사가 도산하거나 환경문제로 소규모 회사가 폐쇄되는 등 공급능력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표 5] 골판지원지증산은 과다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설 SIDE (공급)</li> <li>- 2000~2004까지 매년 거의 100만톤 이상 증설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SIDE (소비)</li> <li>- 현재 중국의 골판지원지 수요는 1,000만톤 이상으로, 연율 10% 전후로 성장을 계속한다.</li> </ul>
--	---

흡수되어진다...

A. 통계수치에서도 일단 공급과 수요는 매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B. 공급 쪽 : 소규모 메이커의 폐쇄, 대형국영기업의 도산이 이어짐  
 C.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은 왜일까?

[표 6] 중국제지업계 구조변화와 특징

- 1980년대 까지 : 압도적으로 국영기업이 업계를 점유
- 1980년대 후반 이후
  1. 외자, 민영에 의한 수입초지기 도입이 시작
  2. 초지기(하드웨어)만이 아닌, 조업과 초지기술, 즉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한 형태의 수입이 본격화
  3. 외자, 민영의 강점
    -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한 최신설비+기술의 도입  
⇒ 품질확보, 섀어 확대
    - 수입원재의 직접구매(종래의 국영무역공사를 통하지 않음)  
⇒ 코스트 경쟁력
    - 우수한 기술계의 인재집결
    - 경영의 적극성, 즉단즉결(即斷即決)형
    - 원지제조 만이 아닌, 후 공정, 가공업으로의 진출이 적극적

### 5. 중국 제지업계 구조 변화

여기서 중국의 제지업계의 구조변화를 간단하게 보고자 한다([표 6] 참조).

변화의 징조가 생겨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외자, 민영에 의한 수입초지설비의 도입이 활발하게 되어 거기에 그 설비(하드)와 병행하여 인재를 포함한 조업기술 등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하여 도입되어 정착되어 간다.

1990년대에 들어서 증설의 주역은 완전히 외자, 민영으로 바뀌게 된다.

외자, 민영의 적극적인 경영 자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원료 면에서도 직접 구매(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공사를 경유)를 하는 등, 코스트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원료의 직접구매에 의해 국제 시장정황으로의 액세스가 증가하여, 더욱 저가로, 양질의 재료를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을지를 흡수하여 결



국은 오늘과 같이 국제원재료시장에 있어서 메인 플레이어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골판지원지는 아니지만 광동성의 어떤 특수지 메이커는 12년 전에 도공에서 시작하여 (2만톤 정도의 도공능력), 그 후 원지를 자사에서 제조하게 되어 (5만톤 원지능력), 작년 제지업계에서는 드물게 주식상장을 이루어 냈다.

경영자는 40대 전반으로 젊으며 1990년대 후반의 홍수로 설비, 원지가 모두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해에는 더욱 새로운 종이 가공분야로 설비투자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주역들이 공통적인 것은 경영자가 젊고 TOP-DOWN으로 방침을 결정하여 증설과 신규분야의 참입 타이밍에 민첩하며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새로운 주역의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목표는 변함없이 중국 국내시장에 맞춰져 있으나,

[표 7] 중국제지업계의 방향성(정리)

- |  |
|--|
| <p>1. 대규모능력의 증설은 아직 중앙정부의 인가가 필요<br/>⇒ 수급을 무시한 증설은 기본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p> <p>2. 최근 외자, 민영 주도의 증설이 주류<br/>⇒ 투자금액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국현지의 자금만으로는 어려움<br/>⇒ 대상은 10% 전후의 성장을 계속하는 포장지가 주체가 된다.</p> <p>3. 최선에 초지기투입, 신규의 추구가 주안</p> <p>4. 당면은 내수주체의 판매가 계속됨<br/>⇒ "수출의 여력이 있으면 한다"라는 자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있다. 특히 가격, 품질안정의 대응 등.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수출의 관심이 높아질 것인가?</p> <p>5. 대규모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료시장으로의 임팩트가 크며, 중국의 제지회사는 모두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 있다.</p> <p>6. 수입지는 계속하여 일정의 역할, 존재감을 유지<br/>⇒ 완전한 수입대체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림</p> |
|--|

올해에는 조금씩이지만 조건에 따라 수출을 해 나갈 것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제지업계전체의 특징을 (표 7)에 정리하였다.

## 6. 중국 제지업계 과제

앞서 말한바와 같이 광동성은 "수출형"의 경제발전을 이뤄 온 경위가 있어, 제품의 대부분은 수출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 제조업에 있어서도 비슷하여 수출과정에서의 제품파손을 용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포장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가전을 중심으로 중국메이커도 수출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에 있다.

따라서 제품을 보호하는 품질을 유지하는 "포장설계" 분야의 니즈는 앞으로도 착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강도 면을 중심으로 하는 니즈"에 더해 "진열을 의식한 니즈"라는 흐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메이저급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상품을 더욱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블리스터 팩으로 일컬어지는 판지와 PVC 등을 조합한 포장형태이다.

종이 단독의 포장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와의 조합이 요구되고 있는 점도 있어 니즈의 복잡화, 개별화의 눈에 띄는 일례이다.

이는 포장형태가 유져니즈에 의해 더욱 세밀하게 고도화, 복잡화, 개별화되어 가는 것이 최

전선의 실정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는 현상은 15% 정도의 웨어를 가진 수입지를 중심으로 대응되고 있다. 종래부터 “규모의 확대”에 전념하여 온 중국국산지가 이 “작은 변화에 필요한” 유

**[표 8] 골판지원지의 조달(1)(완전 현지조달 형)**

- 라이너, 중심을 같이 현지조달 한다.
- 코스트 : 수입보다는 약간 싸지만, 국내가격변화도 있을 수 있다.
- 납기 : 공장재고가 있으면 다음날, 통상 7~10일 이내
- 포인트
- 조달 방법으로는 용이, 코스트, 납기 면에서 최대의 메리트가 있다.
- 그러나 중심의 품질이 자주 문제가 되어(강화심은 입수곤란), 클레임이 되면 코스트 증가로 이어짐  
⇒ 앞으로 중국국내에서의 중심머신의 가동에 의해 조금씩 해소될 것임

**[표 9] 골판지원지 조달(2)(현지+아시아 조달 혼합형)**

- 라이너는 현지, 중심은 호주, 아시아로부터 넓게 조달한다.
- 코스트 : 수입지는 현지조달 품과 거의 동등 또는 약간 비쌈
- 납기 : 수입지상당의 납기(최저 1개월)소요
- 품질 : 안정감이 있다.
- 포인트
- 중국의 대규모 메이커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는 중규모, 규격도 일본과 비슷하여 유연성이 있다.
- 아시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고지원료를 수집하기 쉬운 환경으로 안정공급도 가능
- 아시아 측도 중국 시장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판매의욕이 있다.

저니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일본의 판지업계와 같이 고객의 용도별로 세밀하게 그레이드를 설정하거나 고객과의 공동 개발 등이라는 생각은 아직 중국에서는 아

**[표 10] 조달의 주요 포인트**

- 홍콩의 활용 : “세계의 종이 백화점”, 갖가지 종이 입수 가능하지만 거래루트가 경직되어 있는 품목도 다수 있으며, 역할이 한정적이다.
- 아시아 조달을 시야로 : 현지조달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품목을 알아내서 넓게 아시아에서 조달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 현지조달지향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나, 니즈의 고속화, 복잡화, 개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복잡화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타국의 소스를 확보하도록 의식할 필요가 있다.

**[표 11] 진행된 조달사상**

- 현지조달에서,
- 현지조달 + 아시아조달로  
↓
- 그리고 + 세계조달로
- 1. 제품본체, 부품이 세계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지금, 포장재 료에 있어서도 세계조달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 2. 환경보호를 주안으로 놓은 자체조달이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아래 원지의 소스를 다양화하여, 그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스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예를 들어 인쇄용지에 있어서는 벌써 일본계 진출기업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의식한 재생지의 니즈가 높아가고 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대응이 곤란하다).

**7. 골판지 원지조달 방법과 주요 포인트**

[표 8]과 같이 골판지원지를 라이너, 중심과 함께 중국에서 현지조달 한다고 하는 방법이 가장 코스트 및 납기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중심의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



분도 있다. 제2항에서 말한바와 같이 중심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수입품질수요가 있다. 포장지 분야에서의 증설은 부가가치가 높은 라이너와 백판지에 비해 뒤쳐졌다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작년 이후의 중심지 증설에 의해 점점 해소되어 갈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중심 품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 9]와 같이, 라이너를 현지조달하여 중심을 호주나 아시아에서 수입(한국,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가능 국가로부터)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원지조달의 중요 포인트로는 [표 10], [표 11]에 나타낸바와 같이 전통적인 홍콩 경유, 완전현지조달만에 의존하지 않고 넓게 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이외의 소스를 두텁게 보유하는 최종적 목표 즉 “+세계조달” 일 것이다.

### 8. “+(플러스) 세계조달” 필요성

“+세계조달”의 근본에 있는 것은 제품과, 부품이 세계 각지로부터 조달되어 제조되어지는 흐름과 같이, 포장재료, 원지도 유저니즈의 고도화에 맞춰 점점 걸맞은 생산지로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조달에 일념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본론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골판지 원지를 중심으로 중국의 포장산업도 급속히 발전을 이뤄왔으나 “규모의 확대” 중심의 발전과정 중심으로 『강점』도 있으나 동시에 중심품질과 세밀하고 고도화 된 니즈의 대응이 빈약하다고 하는 『약점』도 갖고 있다.

『강점』을 현지조달에 잘 활용하여 『약점』을

+아시아, +세계조달로 보충하여 총합적으로 더욱 품질이 좋고, 더욱 경쟁력이 있는 포장 재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계조달”의 본질이다. 유저니즈의 고도화에 따라서 ‘포장설계’ 레벨 만이 아닌 ‘조달사상’도 고도화 해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 II. 결론

앞으로는 더욱 앞서 말한 각 중국제지회사의 제조현장, 구체적인 사용 예, 유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더욱 실제의 비즈니스에 가까운 면에서의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 싶다. 또한 골판지원지만이 아닌, 백판지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해가고 싶다. ☞

### 독 자 결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결령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이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